바다 쪽으로 한 뼘 더 나아가고 싶은 시인의 마음

《눈물은 왜 짠가》 함민복 지음 | 아태 | 206쪽 | 값 8,000원

산문집 낸 것을 자꾸 쑥스러워하는 함민복은 타고난 시인이다. 그는 혼자 사는 사람 집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는 제비를 속여 함께 살기 위해 텔레비전 볼륨을 키우고, 빨래도 내다 거는 순박한 사람이다. 그의 손을 훔쳐보니 뭉툭하고 거칠게 마른 것이 섬약한 시인의 손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강화도 서쪽 해안의 버려진 집에서 7년째 혼자 살고 있다. 강화도 토박이 친구들도 사귀어서 고깃배에 함께 올라 일을 거들고 반찬을 얻어오기도 한다. 바다와 개펄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가 산문집을 냈다. 《눈물은 왜 짠가》가 제목이다. 명문장가 김훈은 추천하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가난과 불우가 그의 생애를 짓밟고 지나가도 그는 몸을 다 내주면서 뒤통수를 긁고 있다. 그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은자이고, 숨어서 내다보는 견자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강화도 서쪽을 방향으로 정한 것일까? 거기서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

"예전에 우연한 기회에 강화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가을이었는데 바다의 푸른빛과 붉은 단풍빛이 서로 대비되면서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 빛깔을 잊지 못해 강화도에 들어왔죠. 충청도 내륙 출신의 저에게 강화도의 바다는 경이, 그 자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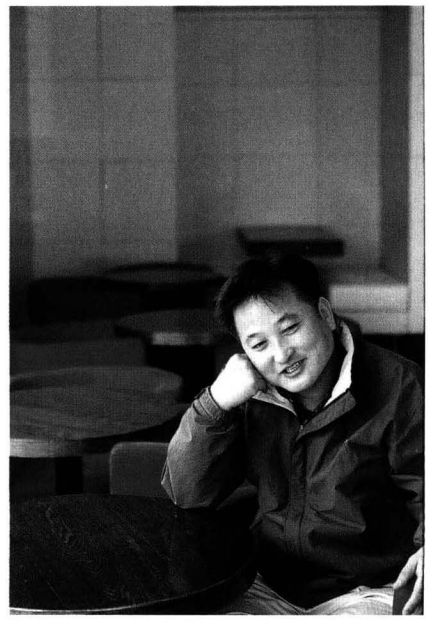
이 산문집에는 강화도에서의 시인의 일상, 그리고 어머니와 가난한 삶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들어간 설렁탕 집에서 그에게 고깃국물을 더 먹이기 위해, 일부러 소금을 많이 넣고는 짜서 그런다며 주인에게 국물을 더 청한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투가리에 국물을 따라줄 때 투가리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서글퍼 눈물을 흘리고 만다. 이처럼 따뜻하면서도 치밀한 감성이 별다른 치장이나 수식 없이도 그의 문장을 맑게 빛나게 한다. 글의 갈피마다 들어 있는 진솔한 삶의 고갱이는 이 산문집이 독한 회의 없는 지식이나 삶에 대한 쉬운 동의를 늘어놓는 다른 산문집들과 확연히 구분되게 만든다.

"저는 개펄에 관심이 많아요. 개펄이 아닌 도시의 지상은 온통 딱딱하죠. 모든 게 수직 지향일 뿐입니다. 개펄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걸음을 떼기가 불편해요. 개펄의 진흙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그게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저는 시를 통해 가장 원시적인 감각인 촉각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것은 곧 경직화된 세상에 부드러움의 힘을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 그는 특이하게도 공업고등학교(수도전공)에 진학하게 된다. 그 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오로지 학비가 면제되었기 때문. 졸업 후에는 자동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이 보장되어 있었다. 가난했던 함민복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미래가 결정된' 그 상황은 그에게 암담한 현실로 다가온다. 꿈은 거세당한 채 삶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 그때 그에게 빛을 보여준 것이 문학이었다.

"친구네 집에 우연히 갔다가 문학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문학에 눈을 뜨게 되었죠. 틈나는 대로 소설을 썼어요. 제 문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늦깎이로 서울예대 문창과에 입학, 기라성 같은 스승들로부터 문학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고된 문학수업 끝에 1988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한 뒤, 개성적인 시들을 꾸준히 발표해 우리 시단의 중요한 시인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다 같은 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벽 밖에서 못 박을 위치를 잡기 위해 망치를 두드린다. 아니 그쪽으로 말고 바다 쪽으로 한 뼘 더… 기준을 바다로 삼는 이곳 사내들처럼, 나도 바다 쪽으로 한 뼘 더 나아가 시를 좀더 짧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취재 김도언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